

# 한국의 사료산업 현황과 한·중 경제협력방안

◇…본고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중앙대 동북아연구소가 작년 12월 27일 서울소재 농업기술진흥관에서 개최한 「한·중 농업협력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편집자주>…◇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1. 서론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은 60년대이후 성장산업으로 발전해온 이래 개방이란 가장 큰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미타결상태의 UR협상태이블에 대부분의 축산물이 NTC(Non-Trade Concerns: 비교역적기능)품목으로 선정되어 올라있지만 이에 대한 인정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89년의 GATT결정에 의해 '97년 6월까지의 모든 축산물을 개방키로 되어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국내 축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축산물 생산비를 낮추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축산물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배합사료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료의 원가절감이 축산비의 생산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서 수입되기 시작한 사료원료인 옥수수, 수수, 대두박 등은 한·중 경제교류는 물론, 한국의 배합사료 및 축산물

생산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양국은 축산 및 사료분야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의 현황과 사료분야에 있어서 한·중 경제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배합사료 산업 현황

### 가. 배합사료 공장현황

'90년 1월 1일 현재 한국사

료협회 산하공장 62개, 축협산하공장 19개로 총 사료공장수는 81개이며, 생산능력기준으로 보면 사협산하공장들이 83.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경인지역에만 전국 사료공장의 38%인 31개가 분포되어 있고, 전체 사료공급능력의 40%가 이들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서울이란 대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이들지역에 근교축산업이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곡물입항지인 인천항과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한편, '90년 우리나라 사료산업의 생산규모별 현황을 보면 일산능력 300톤 이하의 중·소규모 공장수가 총 39개로 전체 사료공장의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능력 300~399톤의 그룹이 25개, 400톤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17개가 있다.

이를 다시 그룹별 생산능력 구성비로 비교해 보면, 일산능력 300톤 이하의 중·소규모 공장들의 년산능력은 전체의 26.3%에 불과하며 300톤 이상의 근대화공장들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73.7%에 달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사료산업은 많은 수의 공장들이 중·소규모로서 대규모 사료

〈표1〉 배합사료생산현황

가. 생산량

구 분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 타	계
1970	459,698	9,917	19,333	.	18,616	507,564
1975	568,566	135,505	150,671	33,495	12,758	900,995
1980	1,871,852	769,357	513,541	306,333	1,335	3,462,418
1985	2,309,726	1,923,692	994,282	1,209,042	14,330	6,451,072
1986	2,639,176	2,178,297	1,208,477	1,624,251	25,040	7,675,241
1987	2,933,024	2,953,297	1,404,234	1,673,467	54,207	9,018,229
1988	2,947,385	3,603,712	1,608,423	1,511,624	96,026	9,767,170
1989	2,922,828	4,071,563	1,718,739	1,561,337	128,941	10,403,408

나. 생산비율

구 분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 타	계
1970	90.5	2.0	3.8	.	3.7	100
1975	63.1	15.0	16.7	3.7	1.4	100
1980	54.1	22.2	14.8	8.8	0.0	100
1985	35.8	29.8	15.4	18.7	0.2	100
1986	34.4	28.4	15.7	21.2	0.3	100
1987	32.5	32.7	15.6	18.6	0.6	100
1988	30.2	36.8	16.5	15.5	1.0	100
1989	28.1	39.1	16.5	15.0	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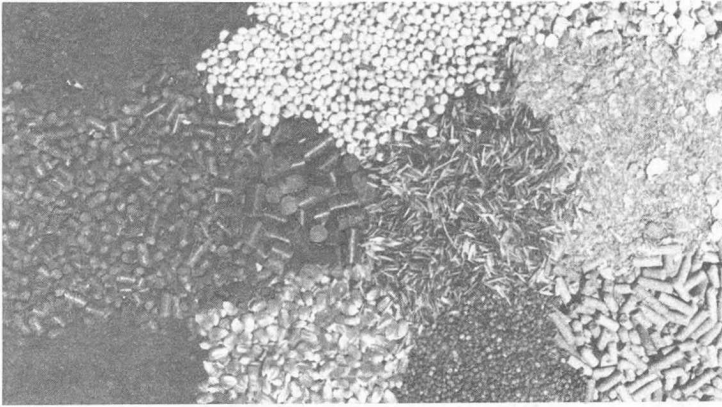
공장과 공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료공장이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료산업은 원료입항지와 양축단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중·소공장들의 대규모경제의 유리성(Economy of scale)도모가 전환기 사료산업의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 배합사료 생산현황

축산업이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서 가축의 사육규모가 확대되고 우량종자나 종축의 수입보급으로 양축가들은 보다 효율이 높은 사료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사료원료만으로는 고효율사료를 생산하기가 불가능 했으므로 사료원료의 수입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사료산업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산업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축종별 배합사료의 생산량을 보면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양계용사료가 주축을 이루었으나 양돈, 낙농, 비육우



등이 부업적 경영에서 점차 전업내지 기업화 됨에 따라 생산비율에서 양계용 사료는 점차 감소하고 양돈, 낙농, 비육우 등의 사료는 증가하고 있다.

양돈용 배합사료의 생산은 다른 축종의 생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70년에 총생산량의 2.0%인 9천 9백톤을 생산했던 양돈용사료는 '74년에는 19배가 증가했고, 그후 양돈분과 돼지과동이 일어난 '79년에는 1백만톤을 넘어서 전체 사료생산량의 29.1%를 차지하였다. 이후 양돈 사료는 호·불황을 거듭하고 등락을 보이면서도 꾸준히 증가해오며, 지난 '89년에는 4백 1만7천톤을 생산여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의 39.1%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배합사료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전업화 또는 기업화로, 축산경영구조가 변화한데 기인하고 있다.

#### 다. 배합사료 원료수급 동향

배합사료의 원료중 국산원료는 '72년에 31만9천톤이었으나, 지난 '89년에는 2백73만 4천톤으로 약 8.5배가량 증가한 반면, 수입원료는 '72년 45만6천톤에서 '89년에는 7백69만2천톤으로 약 16.8배가량 증가하였다.

국산원료와 수입원료의 사용비를 보면 '89년 약 75%가 수입원료로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국산원료 가운데 수입곡물의 가공부산물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국내 자급도는 10% 내외이고 해외 의존도가 90%를 넘어서고 있다.

'89년 전체 사료원료 사용량 중 곡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6.5%, 식물성 박류 17.5%, 강피류 17.1%, 기타 7.5%, 동물성단백질 1.4% 순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사료원료 사용량 증가와 비례하여 원료 수입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연간 900만톤 규모의 약 10억불 수준에 달하고 있다.

주요 사료용 원료의 최근 3년간 수입 동향을 보면 옥수수의 경우 주요 수입선은 미국, 태국, 중국 등이며 중국은 지난 '86년 85만톤으로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31%를 차지한 이후 중국의 풍흉에 따라 등락을 보이다가 현재는 다시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수의 경우 중국산이 대부분으로 '89년의 경우 약 53만9천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의 92.5%를 차지했다. 소맥의 경우 주요 수입선은 캐나다, 호주, EC 등이며 호밀, 귀리 등은 캐나다, EC 등이 경쟁력을 갖고 있고, Cupin Seed는 호주, 타피오카는 태국이 각각 독점하고 있다.

한편, 식물성박두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두박은 지난 '89년에 약 46만6천톤이 수입되고, 이중 80%인 37만1천톤이 중국산으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높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사료원료는 세계 곳곳에서 수입·공급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분이 중국산으로 구성되는데, 그 이유는 운임면에서 유지한데

기인하고 있다. 최근 품질저하와 Shortage(부족분)발생 등으로 사료공장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옥수수, 수수, 대두 밖에서는 아직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3 한·중 경제협력 방안

중국은 10억인구중 약 80%가 농민이며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4개 근대화 사업중 농업이 기본이다. 또 「가축없이 농업이 없다」는 인식하에 식량증산 시책을 전개해 나갈만큼 축산진흥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또한, '88년 FAO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돼지, 닭, 말의 사육두수는 세계 제1위이며 특히, 돼지는 세계 총사육두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간 사료분야에서의 교류는 지난 '84년부터 중국산 사료용 원료인 옥수수, 수수 등이 한국에 수입되면서 물적교류가 이루어졌고, 최근에 와서 정치·경제적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한국의 사료기업과 대두가공회사들이 조심스럽게 대 중국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근대화된 배합사료 수준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다

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양국의 축적된 기술과 풍부한 사료원료가 만날 경우 상당한 투자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는 있으나, 아직 이 분야에 대한 투자정보나 투자요건 등이 이같은 관심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내에서는 내륙수송 수단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탓으로 동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사료자원들이 남부지역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한국이나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내의 사회간접시설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사료원료는 중국 남부에서 수입하는 사료원료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장기적인 한국의 사료원료 조달원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료 및 축산분야에서의 한·중 경제협력도 현재와 같은 단기적인 원료교역에서 벗어나 기술과 원료를 매치시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직접투자 방식을 채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지역에서 계속 증가하는 축산물 수요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식량의 안전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미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콘티넨탈그레인, 퓨리나 등은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합사료중 일부는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등이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동남아지역에 수출하려 할 경우 운송비용 상승, 제품의 신선도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요건이 있으나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에서 경쟁력 있는 몇가지 원료를 이용 반제품 사료 등을 생산, 수출할 경우 이같은 제약요건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한·중 양국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많고 비용 격차도 높기 때문에 사료 및 축산분야에서 적절한 협력만 이루어진다면 투자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교역은 그동안 체제의 상이성 및 양지역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상호협력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한·중 관계개선 무드에 동승하여 사료산업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상호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출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